소방관님들 중에 최고 대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수영구 [redacted]에
사는 김[redacted] 시민입니다. ([redacted])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홀로 사는데 9월 14일날
어머니께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열지 못하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득불 소방관님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한지 30분도
안되어 소방관님들이 왔습니다.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강제로 따서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에 다시 와서
파손된 문까지 완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관들은 "불 끄는 일"하는
분들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고 있는걸 봤습니다.
음료수를 드려도 드시지 않고 가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박 휘락이라는 명찰이 있고 다른 세분은 비옷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것도 없고 아는것도없고
단지 진심으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최고대장님께 이분들의 진정함과 성실함을
알려드려서 칭찬이라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2021. 9. 17 김 [redacted] 올림